# sports

KIA가 1위 싸움 중인 LG, 1.5경기 차로 추격한 NC와 운명의 건 승부를 펼친다. 사진은 플라이 타구를 올려보고 있는 포수 박동원.

### PGA 복귀 안병훈 '산뜻한 출발'

### 시즌 개막전 공동 4위

2022-2023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복귀한 안병훈(31·사진)이 개막전에서 '톱5'에 이 름을 올렸다.

안병훈은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파72·7123야드)에서 열린 포티넷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한 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가 된 안병훈은 저스틴로어(미국)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을 차지한 맥스 호마(미국·16언더파 272타)와는 4타차다.

'한·중 탁구스타' 안재형, 자오즈민 부부의 아들 인 안병훈은 2020-2021시즌이후 PGA 투어 카드 를 잃은 뒤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에서 한 시즌을 보내며 선전, 이번 시즌 PGA 투어로 복귀했다.

개막전부터 1라운드 공동 3위를 시작으로 상위 권에서 경쟁하며 첫 우승 기회도 엿봤지만, 선두와 2타 차 4위로 시작한 최종 라운드에서 많은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순위를 지킨 것에 만족해야 했다.

2015년 5월 유럽투어 BMW PGA 챔피언십과 올해 2월 콘페리 투어 리컴 선코스트 클래식에서 우 승한 적이 있으나 PGA 투어에서는 아직 우승이 없 는 그는 새로운 시즌 첫 대회에서 경쟁력을 확인하



며 기대감을 안겼다. 빗줄기가 오가는 궂은 날씨 속 진행된 최종 라운드 전반 안 병훈은 버디와 보기 2개씩을 맞바꿔 타수

를 줄이지 못했다. 11번홀(파3) 티샷 이 그린에 살짝 미치 지 못한 뒤 7m 넘는

거리에서퍼터로굴린

공이 그대로 들어가 버디를 솎아낸 그는 13번 홀(파 4) 보기를 적어냈으나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에 힘입어 공동 4위로 올라서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호마는 18번 홀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지난 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와 함께 PGA 투어 통산 5 승을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약 20억원)다. 2016년 마스터스에 이어 PGA 투어 통산 2 승을 노린 윌릿은 한 타 차 2위(15언더파 273타)로 마쳤고, 테일러 몽고메리(미국)가 3위(13언더파 275타)에 올랐다.

PGA 투어 데뷔전에 나선 김성현(24)은 이날 버디 2개와 보기 하나, 더블 보기 하나로 한 타를 잃고 공동 36위(6언더파 282타)에 자리했다.

. /연합뉴스

## 가을야구 '빨간불' KIA 벼랑끝 승부

1위 노리는 LG·1.5게임차 NC와 맞대결… '7연패 끊기' 분위기 반전 급선무

KIA 타이거즈의 2022시즌 운명을 건 3연전이 펼쳐진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호랑이 군단'이다. 올 시 즌 14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KIA는 7연패 늪에 빠졌다. 9월 가장 뜨거운 팀이 된 6위 다이노스는 어느새 1.5경기 차까지 다가왔다.

KIA는 20·21일 안방에서 LG 트윈스를 상대한다. 1위 SSG 랜더스를 3.5경기 차로 쫓고 있는 만큼 LG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어 창원으로 이동해 NC와 숨 막히는 순위 싸움을 벌인다. 22·23일 2연전에 24일 잔여 경기 일정까지 더해져서 운명의 3연전이 준비됐다.

7연패의 수렁에 빠진 KIA. 이길 수 있던, 이겨야 했던 경기들을 번번이 놓치면서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아다

KIA는 18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도 어렵게 잡은 승기를 허무하게 놓쳤다. 이날 KIA는 5회말 4실점은 했지만 6회초 수아레즈를 상대로 5득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뜨거워진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 6회말 선발 이의리에 이어 전상현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섰다. 1점 차 박빙의 상황이었지만 지난 7월 30 일 SSG전을 끝으로 부상 공백이 있던 전상현이 투 입된 것이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전상현은 연속 안타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흔들거렸고, 0.1이닝 2실점의 패전 투수가 됐다.

오랜 부상 공백이 있던 전상현의 투입 시점, 교체 시점 모두 아쉬움이었다.

전상현은 지난 13일 한화의 퓨처스리그를 통해 부상 후 첫 실전을 소화했다.

이날 김종국은 감독은 "전상현은 조금 더 퓨처스에서 해봐야 할 것 같다. 오랜만에 던지는 거라서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고 밸런스도 그래서 퓨처스에서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다. 2~3경기를 던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확실히 하고 상태가 괜찮아지면 콜업할 생각이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사령탑의 이야기와 다르게 전상현은 퓨처스리그에서 15일 한화전만 추가로 소화한 뒤 17일 1군으로 콜업됐다. 그리고 6연패, 1점 차 리드라는 부담 많은 상황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여기에 완벽지 않은 제구와 구위로 3피안타 1볼넷을 허용한 뒤에야 벤치가 움직였고, 이미 분위기는 삼성에 기울어다.

앞서 지난 14일 김종국 감독은 "내탓이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KIA는 이의리와 안우진이 맞붙은 13일 키움과

의 홈경기에서 1-2, 1점 차에서 마지막 9회를 맞았다. 1사 1루에서 사이드암 윤중현에 이어 좌완 김정빈이 투입됐다.

시작과 함께 김정빈이 김태진을 6구째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김준완에게는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면서 1사 만루. 제구 난조에도 그대로 김정 빈이 마운드를 지켰고, 김규성의 좋은 수비로 투아 웃은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볼은 계속됐다. 김정빈 이 연속 볼넷과 함께 밀어내기로 2실점을 한 뒤에 야 투수가 고영창으로 교체됐다.

김종국 감독은 이 패배 다음 날 "정빈이가 인천에 서부터 밸런스와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다. 구위 자체는 좋은데 심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다"며 "잘 막아줄 거라 생각했다. 좌타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감독이 선수기용을 잘못한 게 패인이다. 내 잘못으로 아쉽게 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패배와 함께 KIA는 7연패에 빠졌다. 마운드 기용은 물론 타선의 극대화에도 실패한 김종국 감독은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진짜 반성'을 통해 달라진 모습으로 KIA의 승리를 지휘할 수 있을지, 사령탑에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A매치에서도 해트트릭 해볼까

손흥민 귀국, 23일 코스타리카·27일 카메룬과 평가전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폭발하며 골 가뭄을 끝 낸 손흥민(30·토트넘·사진)이 대표팀 합류를 위 레 10의 이저그제고하우 토레 기그랜디

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짙은 색 후드티를 입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 낸 손흥민은 밝은 얼굴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공항을 빠져나갔다.

손흥민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 경기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 돼 약 13분 만에 세 골을 몰아치며 대표팀에서

활약을 기대케 했다.
EPL에서 토트넘 구단 소속으로 교체 출전한 뒤 해트트릭을 달성한 것은 손흥민이 최초다.

이는 EPL을 통틀어도 7차례 밖에 나오지 않은 기록이며, 2015년 9월 에버턴 소속이던 스티븐 네이스미스가 첼시를 상대로 3골을 넣은 게 소흥민 직전 사례였다.

이 경기 전까지 개막 후 8경기째 골이 없던 손 고사'를 치른다.

흥민으로서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반가운 활약이었다.

레스터시티전을 6-2 승리로 이끈 손흥민은 경기 후 중계진에 "시즌 초반 힘든 시기를 보냈고, 솔직히 말하면 좌절하기도 했다"면서 "A매치 휴 식기에 들어가기 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 뻐했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26인 엔트리가운데 20명의 선수가 모인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 곧장 합류한다. 이외 이강인(마요르카), 김민재(나폴리), 황의조, 황인범(이상 올림피아코스),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등 주말 동안 소속팀 경기 일정을 소화한 유럽파 선수들은 이날 늦은 오후와 20일에 걸쳐 가세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23 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을 상대로 11월 예 정된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한 두 차례 '9월 모의 고사'를 치른다. /연합뉴스



## 범 내려 온다

축구 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유니폼 붉은 상하의에 어깨 '호랑이 줄무늬' 원정 유니폼, 검은 바탕에 '3태극'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이 입고 그라운드를 누빌 새 유니폼이 공개됐다. 〈사진〉

스포츠 제품 브랜드 나이키는 19일 서울 강남 구 나이키 써클81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축 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공개 행사'에서 선수들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착용할 홈·원정 유니폼을 공 개했다.

이번 홈 경기 유니폼은 나이키가 한국 문화 정체성의 상징으로 꼽은 도깨비와 호랑이를 주제로 제작됐다.

상·하의가 모두 전통적인 붉은 바탕으로 제작된 가운데 깃과 나이키·대한축구협회 로고, 어깨 부분의 줄무늬 패턴 등에 검은색을 섞었다.

나이키는 "강렬한 붉은 색 바탕은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맞서는 도깨비에서 착안했다"며 "호랑이 줄무늬를 형상화한 물결무늬 패턴을 어 깨 부분에 더해 용맹스러운 힘과 기개를 담아냈 다"고 설명했다.

원정 유니폼은 검은 바탕에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 무늬가 상의 전면을 뒤덮고 있다. 이는 하 늘, 땅, 사람의 조회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 문양 삼태극(三太極)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나이키는 밝혔다.

나이키는 "삼태극에서 비롯된 빨강, 파랑, 노 랑의 전면 프린트 패턴은 전 세계로 퍼지는 한류 를 나타낸다"며 "홈 유니폼처럼 호랑이 무늬도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통적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 외 선수



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세부 적으로도 힘을 줬다고 강조했다.

자사 최첨단 기술 소재 플랫폼인 '드라이핏 ADV'를 적용, 신체에서 열과 땀이 가장 많이 발



생하는 부분에 흡습, 통기성을 강화했다는 게 나이키의 설명이다. 여기에 환경 보호의 의미를 더해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100% 재생 폴리에스터로 유니폼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